

치과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조사

김영석
경북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Opinions of Dental Related Major Students on Dental Hygienists

Young-Seok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Kyungpook University, Sangju, 37224, Korea

요 약 이번 연구의 목적은 치과 관련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과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치기공과, 간호학과 학생들로 나누어 각 25명씩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 일반적인 정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찬반과 그 이유,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및 의료행위 업무, 치과위생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빈도분석과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이 56.2%로 반대 4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에 따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찬성의 경우 치위생학과에서 90%로 가장 높고 간호학과에서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에 대한 인식과 업무 중 의료행위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학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학생 때부터 이루어진다면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erceptions and opinions on medical personnel related to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 students, including dentistry students, dental hygiene students, dental technology students, and nursing students. The survey items consisted of general information, the pros and cons of medical hygienists and their reasons, the scope of legal work, medical practice, and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ists. Frequency analysis and χ^2 -tes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s and cons of the dental hygienist's medicalization were 56.2% in favor and 40% in oppos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pinions of the dental hygienists involved with medical hygiene by 90% and 25% in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rate of recognition of medical activities among the departments.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dental hygienists will be achieved only if proper knowledge and education about dental hygienists are made available in other departments.

Keywords : Dental hygiene, Dentistry, Dental Technology, Medical Personnel,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Young-Seok Kim(Kyungpook Univ.)

email: young1224@knu.ac.kr

Received April 2, 2020

Accepted July 3, 2020

Revised May 8,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행태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2018년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수는 1.9개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OECD 평균인 1.2개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1]. 세계적으로도 불소의 사용과 구강보건의 향상으로 인한 치아우식증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과의 패러다임도 더이상 질병의 치료가 아닌 질병 발생 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학문과 기술이 이동하는 'paradigm shift'가 일어나고 있다[2,3].

이러한 예방중심으로의 접근과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구강질환의 예방에 있어 실제적인 업무를 맡는 직업이 바로 치과위생사이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사'에 포함되며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다[4]. 이와 더불어 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치료,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이라고 하였다[5].

미국, 캐나다,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체온 측정, 혈압 측정, 전기치수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에 비해 좀 더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6].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1948년 7월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기사법이 아니고 "치과위생사법"으로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도 치과위생사 법령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7].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라는 큰 틀에서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도울 수 있으나 자의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하기에는 현재 정해져 있는 법령의 범위가 너무 좁고 세분화되어 있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를 할 때 마다 매번 치과위생사는 현실과 법령사이의 괴리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보니 치과위생사는 예방의 업무보다 치과 진료보조업무에 맞춰져있으며,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학문분야도 예방쪽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치과 내에서도 간

호조무사와의 업무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내부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지위를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바꾸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치위생관련법에 대한 요구도 파악, 업무영역의 현실과 발전방향과 같은 다양한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8-10]. 이러한 내부에서의 원동력은 임상에 있는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학생에게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주어야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많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보고되었다[11].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정확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위생사 내부에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며, 다른 직종들의 관심과 지지가 이루어질 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 직무 및 의료인화에 대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 과정 등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들은 치위생계가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심과 지지는 해당 직종의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다른 직종과 연계해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치과위생사의 현실적인 업무확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실제로 의료인화라는 과제를 풀기위한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보장된 업무범위 확장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기에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과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식 개선과 다른 직업군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및 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대학교 대학생들 중 치과와 관련된 학과인 치의학과, 치기공

학과, 치위생학과 및 의료인으로써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제목으로 한 온라인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를 시행한 학과는 4개 학과로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간호학과, 의의학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학과별 20명씩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80명의 설문지의 응답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12]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자기기입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정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찬반과 그 이유,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및 의료행위 업무, 치과위생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치과위생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생각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2.1.3 통계분석

설문내용 중 지인 중 치과위생사 혹은 치위생학(과) 여부, 실습 시 치위생(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여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업무 중 의료행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생각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전공에 따른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 및 치과위생사 업무의 전문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test(카이제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70%로 여성 3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세 이하가 6.2%, 21-24세가 66.3%, 25세 이상이 27.5%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은 치과학, 간호학, 치위생학, 치기공학 학생들이 각각 25%씩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이 56.2%로 반대 4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Division	N(%)
Gender	Female	56 (70.0)
	Male	24 (30.0)
Age	≤ 20	5 (6.2)
	21-24	53 (66.3)
	≥ 25	22 (27.5)
Major	Dentistry	20 (25.0)
	Dental hygiene	20 (25.0)
	Nursing	20 (25.0)
	Dental technology	20 (25.0)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Yes	45 (56.2)
	No	32 (40.0)
	Don't know	3 (3.8)

2.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찬성의 경우 치위생학과에서 90%로 가장 높고 간호학과에서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Table 2. Opinion on medical personnel transition of dental hygienist

	Division	Opinion on medical personnel transition			P*
		Agree	Opposition	Don't know	
Age	≤20	5 (100)	0 (0)	0 (0)	0.379
	21~24	20 (52.8)	14 (43.4)	1 (3.8)	
	≥25	20 (54.5)	18 (40.9)	2 (4.5)	
Sex	Male	13 (54.2)	9 (37.5)	2 (8.3)	0.368
	Female	32 (57.1)	23 (41.1)	1 (1.8)	
Major	Dentistry	7 (35)	12 (60)	1 (5)	0.000
	Dental hygiene	18 (90)	2 (10)	0 (0)	
	Dental technology	15 (60)	5 (40)	0 (0)	
	Nursing	5 (25)	13 (65)	2 (10)	

*by chi-square test

0.000). 성별에 따라서는 찬성에서 남성이 54.2%, 여성이 57.1%를 나타냈고, 연령에 있어서는 20세 이하가 100%, 21-24세가 52.8%, 25세 이상에서는 54.5%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견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20세 미만에서는 60%, 21-24세에서는 62.3%, 25세 이상에서는 54.5%가 높다고 대답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 따라서도 남성의 75%, 여성의 53.6%가 높다고 대답하였지만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과에 따라서는 치의학과와 간호학과에서 55%, 치위생학과와 치기공학과에서 65%가 높다고 대답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ism

	Division	Professionalism		p*
		Low	High	
Age	≤20	2 (40)	3 (60)	0.825
	21~24	20 (37.7)	33 (62.3)	
	≥25	10 (45.5)	12 (54.5)	
Sex	Male	6 (25)	18 (75)	0.073
	Female	26 (46.4)	30(53.6)	
Major	Dentistry	9 (45)	11 (55)	0.841
	Dental hygiene	7 (35)	13 (65)	
	Dental technology	7 (35)	13 (65)	
	Nursing	9 (45)	11 (55)	

*by chi-square test

2.2.4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첫솔질 교습, 불소도포, 치근단촬영, 치아홈메우기 및 임시충전의 업무에 대한 답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이 학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4). 스케일링은 모든 학과에서 대부분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로 알고 있었으며, 반대로 호선제거와 임시치아장착의 경우 모든 학과에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라고 대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4. Realize the legal role of dental hygienist

Division	Major				p*
	Dentistry	Dental Hygiene	Dental technology	Nursing	
Tooth brushing instruction	20 (100)	20 (100)	16 (80)	15 (75)	0.016
Fluoride application	16 (80)	19 (95)	13 (65)	11 (55)	0.023
Scaling	18 (90)	17 (85)	18 (90)	14 (70)	0.267
temporary tooth adhesion	4 (20)	9 (45)	7 (35)	4 (20)	0.232
Remove correction line	6 (30)	9 (45)	3 (15)	6 (30)	0.232
radio-graphy	7 (35)	16 (80)	12 (60)	13 (65)	0.033
Sealant	3 (15)	16 (80)	4 (20)	5 (25)	0.000
Temporary filling	1 (5)	13 (65)	5 (25)	4 (20)	0.000

*by chi-square test

2.2.5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행위라고 인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의료행위'라고 대답한 항목 중 치근단 방사선 촬영은 치위생학과에서 65%, 치기공과에서 60%, 간호학과에서 65%, 치의학과에서 20%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0). 또한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는 치위생학과가 80%, 치기공과가 30%, 간호학과가 45%, 치의학과가 2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2).

Table 5. Realize the med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ist legal roles

Division	Major				p*
	Dentistry	Dental Hygiene	Dental technology	Nursing	
Tooth brushing instruction	12 (60)	11 (55)	11 (55)	10 (50)	0.939
Fluoride application	13 (65)	14 (70)	11 (55)	12 (60)	0.785
Scaling	18 (90)	18 (90)	17 (85)	14 (70)	0.267
temporary tooth adhesion	3 (15)	10 (50)	9 (45)	8 (40)	0.103
radio-graphy	4 (20)	13 (65)	12 (60)	13 (65)	0.010
Sealant	5 (25)	16 (80)	6 (30)	9 (45)	0.002
Temporary filling	9 (45)	12 (60)	11 (55)	9 (45)	0.717

*by chi-square test

2.3 고안

현재 치과위생사는 그 업무에 대하여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 범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고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법적인 저촉을 받으며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13].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치과위생사의 건강한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의료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현황이나 업무 범위 및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2].

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확대 및 발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걸음 나아가려면 다른 직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자의 업무에 대해 배우는 학생 때부터 서로의 직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견해는 임상에서 일하는 인력에게도 중요하지만 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생 때의 인식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타직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배우는 곳으로 여기에서 타 직종에 대한 긍정적인이고 올바른 관점이 자리잡는다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또한 학교에서 치과위생사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현재 치과위생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방안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면서 졸업 후에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의 당위성에 대해 보다 두터운 지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사와 의료인간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25%만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찬성하였으며, 치의학과에서도 35%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하여 의료인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78.7%, 의료기사에서는 30.2%로 나타났다[14]. 이는 의료인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의견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의료인들이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높다고 평가한 경우가 50.9%로 의료기사의 86.4%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다른 직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의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한 비율이 의료기사계열 학생들이 35%, 의료인계열 학생들이 45%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아직 치과위생사의 직종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학습되지 않았고, 임상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4].

또한 이번 연구에서 의료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87.5%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치과라는 영역의 특성상 생명의 위급함을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입원환자나 다양한 전신질환 환자의 구강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예후가 더 나빠지기도 하며,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좀 더 현실적으로 확대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치과위생사의 개입을 통해 환자의 질병 악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도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에 비해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스케일링이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법적업무라는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란트나 임시충전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업무라는 인식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행위라고 인식하는 업무는 치석제거가 모든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군에서 의료행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지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5]. IPE란 직종간 교육으로써 연계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다른 직종 간의 팀워크를 다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예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의학과나 간호학과 학생들과 치위생학과 학생들 간에 IPE를 시행하였을 때 직업간 협업 업무역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6,17]. 이처럼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진료환경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임상에서의 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과 의료인화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내부에서의 인식개선과 지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직군들의 지지와 응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학생 때부터 이루어진다면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 때 얻은 다른 직종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도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과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이 56.2%로 반대 4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공에 따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찬성의 경우 치위생학과에서 90%로 가장 높고 간호학과에서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칫솔질 교습, 불소도포, 치근단활영, 치아홈 메우기 및 임시충전의 업무에 대한 답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이 학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학생 때부터 이루어진다면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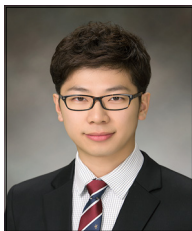
References

- [1] Policy Planning Team, The 4th Health Plan 2020 : Trend Report 2018, Trend Report,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Korea, pp.78
- [2] D. A. Young, L. Lyon, S. Azevedo, "The role of dental hygiene in caries management: a new paradigm",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84, No.3, pp.121-129, Jul, 2010.
- [3] D. Bratthall G.Hänsel-Petersson, H. Sundberg, "Reasons for the caries decline: what do the experts believe?", European journal of oral sciences, Vol.104, No.4 pp.416-422, Aug. 1996. DOI: <http://10.1111/j.1600-0722.1996.tb00104.x>
- [4] Korea Laws. Health & medical law. Medical technicians[Internet]. [cited 2019 June 08].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accessed Nov. 23, 2019)
- [5]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Introduce of dental hygienist. Denfintion of dental hygienist[Internet]. [cited 2019 June 20]. Available from: <https://www.kdha.or.kr/introduce/dentalhygienist.aspx#introduce> (accessed Nov. 23, 2019).
- [6] Y. S. Hwang. Legal Consideration of Foreign Dental Hygienists [Internet]. Dental Today, c2016 [2016 Dec 08]. Available From: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04>
- [7]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Legal Committee. Legal scope of work for overseas dental hygienists[Internet]. Dentalk, c2016[2016 May 03]. Available From: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8] J. R. Park, J. S. Ryu, B. G. Choi, S. J. Han , S. S. Hur, S. H. Hwang, A study on the extension of encouragement of dental hygienist, Report,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Korea, pp.71-87
- [9] H. J. Lee, S. J. Shin, S. M. Bae, B. M. Shin, "Issues and Challenges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Policy in Korea",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9, No.2, pp.409-423, Feb.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409>
- [10] J. H. Hyeong, Y. J. Jang, O. J. Ju, "Dental Hygienists' Work Cognition and Demand for Related Legisl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18, No.5, pp.693-705, Oct. 2018.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60>
- [11] M. H. Kim, Y. H. Lim, K. A. Lee, S. J. Kim, Y. J. Kim, "Dental hygiene students awareness of their legal scope and petition for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Vol.6, No. 1, pp.36-42, Oct. 2018.
- [12] D. S. Lee, G. S. Han, "Problems to Solve and Job

- Enlargement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8, No.6, pp.340-348, Dec. 2018.
DOI: <https://doi.org/10.17135/jdhs.2018.18.6.340>
- [13] Y. S. Nam. News. Medical today. Rights of 80,000 Dental Hygienist, Government have turned a blind eye to their problem. [Internet].[cited 2019 June 07]. Available from: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1708> (accessed Nov. 23, 2019)
- [14] J. H Hyeong, Y. J. Jang, "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17, No.6, pp.1013-1024, Dec. 2017.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6.1013>
- [15] S. Reeves, L.Perrier, J. Goldman, D. Freeth, M. Zwarenstei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effects on professional practice and healthcare outcomes (update)", Cochrane Database Systematic Review, Vol.28, No.3, Mar. 2013.
DOI: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2213.pub3>
- [16] H. B. Allen, T. P. Gunaldo, E. Schwartz, "Creating Awareness for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ental hygiene and nursing student interprofessional service-learning experience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93, No.3, pp.22-28, Jun. 2019.
- [17] M. R. McGregor, S. K. Lanning, K. S. Lockeman, "Dental and Dental Hygiene Student Perceptions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92, No.6, pp.6-15, Jan. 2019.

김 영 석(Young-Seok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예방치과학 (치의학석.박사 통합과정)
- 2015년 9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치과, 치위생, 구강